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6 06 2015

방주 안에서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노아방주 안에는 모든 육지 동물들이 탑승했으므로 초식을 하는 사슴, 염소, 양뿐 아니라 사자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도 탔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동물들이 창조될 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두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고 하셨다(창 1:30). 즉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 알다시피 사자나 늑대처럼 육식동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육식동물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 나타난 것일까?

동물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시점이 정확히 적혀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다'(창 1:29).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에는 채식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창 9:3)고 하시며 육식을 허용하신다.

반면에 성경에서 동물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육식이 가능했는지 분명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흐름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방주 안에 탔다고 말한다(창 7:8). 오늘날 보고 있는 육식과 초식동물이 모두 탔을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이들 모두는 종류대로 방주 밖으로 나왔다(창 8:19). 즉 방주 안에서는 지금과 같이 동물끼리 잡아먹고 먹히는 험악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도 사람과 같이 홍수 심판이 끝난 즉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육식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른다. 실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

로 육식동물의 대부분은 초식도 함께 하는 잡식이다. 아프리카에서 육식동물이 사냥을 하지 못할 경우 식물로부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심지어 육식동물이 초식만 할 경우에도 건강에 전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그 한 예로 1900년 초 조오지 웨스트뷰(George Westbeau) 부부가 자신이 기르던 사자인 리틀 타이크(Little Tyke)에게 9년 동안 곡물과, 달걀, 우유만 먹였지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자랐다. 더군다나 훈련도 잘 받아서 양이나 병아리를 보고도 식욕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함께 놀기도 했다. 고기를 주어도 거절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단지 이런 예뿐 아니라 육식동물로 분류된 동물들에게 채식만을 먹였을 경우 생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빨 등 동물의 모양을 보며 육식과 초식 동물을 구분하려 하지만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식 동물 가운데도 이빨이 뾰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쥐 가운데 초식 박쥐가 있는데 이빨에서는 육식 박쥐와 차이점이 없다. 초식 동물인 판다 역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나무를 오르거나 나무껍질을 벗기는데 유용하다.

이빨이 날카롭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식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창 3:18)가 나오는 시점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더 험악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사 11:6–8)고 말한다.

성경은 지금의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상황은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곳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상황같이 육식동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다시 회복될 그곳이 기대되지 않는가?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진화를 거부하는 물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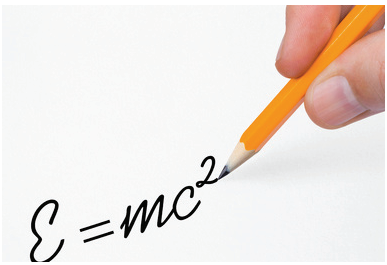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분야이다. 화학에서 원소(elements)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축자재(building blocks)이다. 여기서 하나의 원소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나눌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현재 약 100여개의 원소들과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물질들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모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건축자재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질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질량(mass)을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한편 에너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빛, 열, 및 소리 등이 에너지의 한 형태들이다. 물질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에너지가 작용되었고 에너지의 한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 바뀔 때 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인쉬타인은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과 빛의 속도(진공에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등가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교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먼지같은 물질이라도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엄청난 에너지의 덩어리인 셈이다. 따라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 물질 세계는 엄격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 첫번째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에너지, 기계(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열기(오븐)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고, 자동차는 가솔린 연료를 태워서 화학에너지를 기계(운동)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저절로 발생하지도 않고 없앨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에너지, 즉 물질은 어떻게 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물질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과학은 이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성경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또 잠언 (8:22)에 "하나님이 태초에 조화를 이루셨다"고 하고 느헤미아(9:6)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여 물질의 세계에는 창조와 엄격한 질서의 법칙으로 보존되며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두번째 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는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 아래 모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물질은 점점 쇠퇴한다. 공장에서 막 출품된 제품이 더 새로와 질 수 없고 먹다가 남긴 음식은 부패해 버린다. 모두가 쇠퇴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모두 이 법칙 아래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진화의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단 하나의 과정도 예외가 없다. 진화가 되려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과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물질세계는 엄격한 법칙들이 서로 조율되어 있어서 로마서(1:20) 말씀과 같이 창조자의 지혜와 솜씨를 부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가장 간단한 먼지라도 저절로 우연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R&R 목회자

4월 7-10일 R&R 목회자께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홍정길(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이태웅(GLF) 목사님과 함께 미주에서는 강준민(새생명비전), 고상환(산호세세계선교), 김용훈(열린문장로), 노창수(남가주사랑의), 손경일(새누리), 송민호(토론토영락), 송영선(빌립보), 이종용(코너스톤), 이준호(미주 GMP), 이광길(풀러신학교), 최병락(세미한)목사님, 한국에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 문희곤(높은뜻푸른), 백동조(목포사랑의), 심민수(GMN), 양승헌(세대로), 유관재(성광침례)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으로서 변진석(GMTC), 손창남(OMF), 김요한(GMP), 김태정(HOPE), 손돈호(GMP)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첫 날부터 한국에서 대두되었던 양승훈 교수의 다중격변론과 우종학 교수의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진화론과 성경의 타협 이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셋째 날 저녁강의부터 헤어지는 시간까지

R&R : 저녁 세미나 이후 미팅을 인도하시는 홍정길 목사님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이 이론들이 과학적으로뿐 아니라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울 것을 토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창조과학탐사의 필요성과 함께 교회적 차원의 참여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미래 연구소

4월 20-26일 기독교 미래 연구소(소장 소재찬 목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소재찬 목사님뿐 아니라 김성일(일암), 김재용(세린), 김홍재(예인), 박광현(항만), 서은혜(사랑의), 신순심(무지개), 오태우, 은재한(트랜스), 이호식(결전), 임연화(가나본향), 장규복(수완행복한), 안무열(하늘샘), 류만육(성은), 김병희(소금빛), 최숙분(새생명), 노채석(목동세광), 이용원(부산성북), 김혁(이천선린), 채승주(통현), 한제희(강림), 박순철(주손길장로) 등 53명의 목사님 내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독교 미래 연구소는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 역시 R&R 목사님들과 동일하게 양승훈, 우종학 교수의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창조과학의 중요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앤자 보래고(Anza Borrego) 주립공원을 경유하여 그랜드 캐년이 형성될 때 운반되어온 퇴적물이 분포하는 지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미래연구소: Anza Borrego 주립공원의 Fonts Point에서

수원성교회

여러 교회들

4월 13-17일 수원성교회(담임목사 안광수), 4월 27일-5월 4일 서울드림교회(담임목사, 김여호수아, 신도배), 5월 5-8일 성남금광교회(담임목사 김영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인하는 감격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창조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도구인가를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 교회의 직분자, 교사, 청년들의 참석 계획도 하셨습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4월 11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4월 18-19일 얼바인 열린교회(담임목사 이선영)에서 이재만 선교사는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4월 16일 세리토스 Coffee Break에서 노휘성 강사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창조과학 시간여행(만화) 출판

이재만 선교사의 노아홍수 콘서트를 만화화한 "창조과학 시간여행"(두란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림은 만화가 채홍범 선생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아래는 프롤로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거대한 하나의 퍼즐과 같아요. 산과 강, 절벽과 계곡을 메운 바위들, 그 속에서 저마다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 이 모두가 크고 작은 그림 조각들이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모습이 되었을까요?

또 원래의 지구는 어땠을까요? 곁에 남겨진 조각들을 이리저리 짜 맞추는 동안,

서울드림교회

성남금광교회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지구가 겪었던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특히 지질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라는 퍼즐을 완성해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리저리 흩어진 조각들만으로 거대한 그림을 짜 맞추려고 하죠. 지금까지 밝혀진 수많은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원래 지구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만으론 과거를 온전히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힌트가 필요하지요.

과거의 지구를 그리는 데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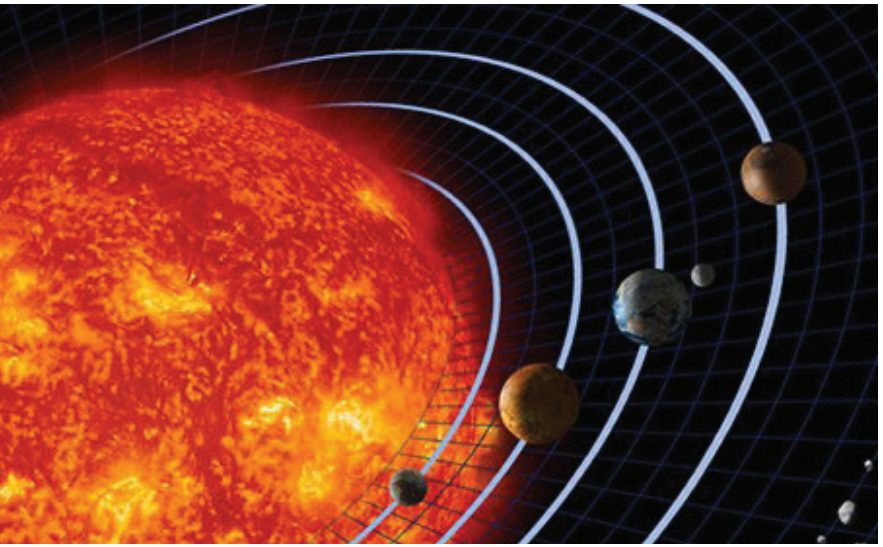
지구의 첫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어때요? 또 직접 쓴 일기장이나 당시 그 모습을 보았던 목격자(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지구의 과거를 보았다는 증인이 있답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을 적은 책도 남겨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이 지구와 인류가 어떤 시간을 겪어 왔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힌트 삼아 퍼즐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지구 전체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지요. 성경은 지구의 지난 시간을 짚어 가는 데 가장 좋은 길잡이랍니다."

생명을 위해 디자인됨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주계열성 (main-sequence star)으로 분류한다. 태양은 다른 별들과 구성성분이 거의 비슷하고, 온도와 밝기 또한 다른 별들의 평균 정도 된다. 여러 모로 보아, 태양은 단지 일상적인 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태양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 명백하다. 어떤 별들은 엄청난 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수퍼 플레어(superflare)를 가지고 있다. 태양은 다행히도 수퍼 플레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태양의 플레어(flare)는 약하다. 태양의 온도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생명을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자외선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태양보다 더 차가운 별들은 가시광선 보다는 많은 적외선 을 방출한다.

은하계 안의 태양의 위치 또한 생명과 과학을 위하여 최적화된 듯 보인다. 만약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좀 더 가까웠다면, 해로운 방사선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태양이 조금 더 은하의 바깥쪽에 놓였다면, 하늘의 절반에서 별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계절을 측정하거나 우주를 연구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태양은 다른 비슷한 별들과 비교했을 때, 리튬이 약 100배정도나 부족하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아마도 또 다른 디자인적 특징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태양은 창조를 확증한다

태양은 창세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 거리였다. 세속 주의자들은 약 50억년간 수소의 핵융합이 태양에서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은 중심부의 밀도를 서서히 변화시키며, 별이 서서히 밝아지게 한다. 물론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그러나 만약 태양이 수십억 년 되었다면, 과거에는 현재보다 30퍼센트 정도 더 어두웠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보다 어두웠다면, 지구는 꽁꽁 얼어붙은 땅이었을 것이며, 생명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태양은 저절로 형성되었다는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세속적 천문학자들은 현재 태양 (및 다른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수소와 헬륨 기체인 성운 (nebula)이 뭉쳐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성운을 발견했지만, 그 누구도 성운이 뭉쳐서 별이 생기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다. 단 한번도. 성운의 기체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려는 압력은 기체가 서로 당기는 미약한 중력보다 훨씬 더 크다. 중력이 어떻게든 기체 압력을 극복했다 치더라도, 자기장과 각 운동량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체가 뭉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태양은 전혀 저절로 형성될 수 없다. 과학은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확증하는 듯 보인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출처 : Jason Lisle, Ph.D.(천체물리학), *Acts & Facts* 42(7): 10-12

번역 : 이충현/ DMD,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규명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왔다.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 체계와 그것을 응용한 기술의 축적은 수많은 혜택과 발전을 의미했기에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분명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과학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과학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꼽는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과학 교과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과학 교과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기원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려 한다. 어떤 학문 분야이든 교과서에 담아 전 국민에게 가르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년이란 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기원에 관한 지식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있을까?

과학 교과서를 통해 가르쳐지는 기원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과학 지식에 대한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 지식을 실험 과학과 역사 과학으로 크게 나눠보자.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관찰, 수집 및 분석, 측정, 실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규칙성이나 반복성 및 경향성 등을 파악하여 숨겨진 질서를 찾아낸다. 과학 활동은 기본적으

로 관찰과 측정 및 실험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참된 원리에 접근해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학 지식을 우리는 '실험 과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공룡은 지구 상에 언제 번성했는가, 빙하기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가,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구에 살았던 처음 생명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매머드는 왜 멸종했는가, 화석으로 남아 있는 동식물들은 어떤 과정으로 묻혔는가……와 같은 문제들은 어떠한가?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 관찰이나 측정 및 실험이 어렵다. 이들에 대한 재현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와 우주 및 생명의 과거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런 대상에 대한 과학 활동을 '역사 과학'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을까? 물론 과거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록을 참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록이 없는(또는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연구이다. 이 경우, 과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추론' 이다. 과거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 무수한 단계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며, 그 모든 단계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역사 과학은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재현할 수 없는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지식 체계인 것이다. 이 때, '전제'가 없이는 거듭된 추론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제가 다르면, 추론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 즉 모든 과학지식이 실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분별력은 실험, 재현 등을 통해 확인된 지식인가, 아니면, 전제들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먼 과거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구분 짓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고 훈련은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전제들이 타당하고 필수적인 것인지,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잘 부합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참된 역사과학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글들을 통해 과학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분별력을 키우고, 성경적 답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노휘성 / 과학교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창조과학 탐사

간 증 —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주님의 은혜로 창조과학 탐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코스로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노아 홍수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풀리어서 감사합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선교사님과 창조과학탐사에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성혜 〈은혜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보너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금련 〈안양석수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는데,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강신엽〈대구 순복음교회〉*

진화론의 허구성을 실감했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 것을 새삼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계신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나 반성하면서 다음 세대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창조과학 탐사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강일성 〈안양석수교회〉*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간은 확신치 못하는 맘으로 그저 믿음으로 믿자 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창조는 확실하며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 *이애경 〈산성교회〉*

창조과학 탐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한결 같은 열정으로 맡은 지식 속에 진행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새롭고 특별한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김성기 〈용인 은혜동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단지 남편과 함께 여행이라는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했던 그릇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옥순 〈열린교회〉*

홍수 이전의 시생대라고 하는 창조시의 땅을 그랜드캐년의 협곡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위험성이 얼만 심각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명권 〈열린교회〉*

성경만이 진리이고 살길 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된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해

10/2–9, 2014

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필수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고, 특히 다음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 *배효미 〈부산 수영로교회〉*

과학적 사실들을 주로 배우고 올 줄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의 모든 과목들, 과학분야들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진실에 근거해서 배운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내용들을 놀랍게, 사람의 지혜, 지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실한 그림을 이루어주신걸 봅니다. 선교사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고 너무 귀합니다. 이 큰 영적 전쟁에 3,4대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 이후로 더 훌륭하게 일하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뒤에서 기도(중보) 하시는 용사들로 하나님이 많이 불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Lauren Chang 〈Rock Church〉*

창조과학 공부를 한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현장 탐사 경험이 없던 저에게 이번 아내와 함께 한 탐사여행은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더욱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삶…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 *김한수&김윤순 〈안산 광림교회〉*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창탐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저의 교회에 돌아가면 널리 전달하겠습니다. – *정재란 〈순복음대구교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믿고 있었던 성경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트가 아닌 박스에 탄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주시리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 *박선희 〈온누리교회〉*

막연히 마음으로만 믿고 있던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알게 되어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신석훈 〈일산 든든한교회〉*

창조과학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말씀을 통해 저를 만지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할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 *엄애례 〈온누리교회〉*

말씀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이정옥 〈수원 창훈대교회〉*

제 삶의 축복입니다. 이곳으로 안내해준 친구가 20년 전 선물해준 그 성경책을 가슴으로 읽겠습니다. – *박정자 〈강화도성공회내리성당〉*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5 ACT Schedule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5-6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이재만), WA
6/7,14,21	LA사랑의교회 초등부 (노휘성), CA
6/10	세리토스장로교회 (이재만), CA
6/12-14	Joyful 교회 (이재만), CA
6/16-19	빙하시대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6/22-24	빙하시대탐사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6/28	남가주 헤브론교회 (이재만), CA
6/29-7/6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7/6-11	창조과학탐사 (Compassion), 이재만
7/8-10	EM창조과학탐사 (나침반교회), 김선욱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만
7/13-16	EM창조과학탐사 (OMA), 김선욱
7/23-26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7-8/2	창조과학탐사 (꿈의학교 월드리더스쿨), 이재만
8/3-7	창조과학탐사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이재만
8/8-9	오렌지가나안교회 (이재만), CA
8/10-12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기쁨교회), 이재만
8/13-15	창조과학탐사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지방회), 이재만
8/16-20	대만 방문 (이재만)
8/31-9/7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9/8-11	창조과학탐사 (은혜빛교회), 이재만
9/12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